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공무원도 참여

400명 경찰행동 규탄
내달 2일 집회 허가 신청
경찰 물대포 도입 강경대응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반대 시위에 홍콩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까지 참여할 뜻을 밝혔다. 홍콩 경찰은 물대포까지 도입하면서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홍콩 공무원들은 다음 달 2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홍콩 도심인 센트럴 차터가든 공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고 이날 경찰에 집회 허가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홍콩 공무원들은 이 집회에서 공무원들이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정국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홍콩 법규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이 금지돼 있어 이 집회에서 정치적인 주장은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 활동 금지에도 불구하고 홍콩 공무원들은 최근 들어 송환법 반대 시위에 대해 갈수록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27일 홍콩 위안랑 지역에서 '백색테러' 규탄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경찰이 쏜 최루탄을 되던지고 있다. 홍콩 시민 수만 명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도로 점거 행진을 강행했다. 이에 경찰은 최루탄 등을 사용해 시위대 강제 해산에 나서면서 부상자도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에는 홍콩 정부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혁신사무처 직원들과 이민, 관세, 소방 등의 행정 실무 책임자급인 행정주임 400여 명이 경찰의 행동을 규탄하고 독립된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26일에는 홍콩 정부의 간부급 공무원 100여 명이 홍콩 정부가 시위대와 대화하고 경찰의 백색테러 사건 부실 대응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홍콩 정부청사 내에는 공무원들이 '레넌 월'을 만들어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하는 구호와 표어 등을 적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레넌 월은 1980년대 체코의 반정부 시위대가 벽에 존 레넌의 노래 가사와 구호 등을 적어 저항의 상징으로 만든 것에서 유래했으며, 현재 홍콩 곳곳에는 송환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레넌 월이 만들어졌다.

이처럼 시위가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홍콩 경찰은 시위 진압에 물대포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해 5월 독일 벤츠 사로부터 도입한 212만 달러짜리 물대포를 조만간 도로에서 테스트한 후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시위 진압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홍콩 경찰은 이 물대포가 분사하는 물에 물감을 섞어 이를 맞은 시위 참가자를 손쉽게 식별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콩 시민단체는 "한국에서 2015년 물대포에 맞은 시위 참가자가 머리를 심각하게 다친 후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다"며 홍콩 경찰의 물대포 도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 홍콩 경찰은 시위 진압에서 공세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연합뉴스

"美 지명위 DB서 '동해' 별칭 표기"

주성재 동해연구회장 간담회
"전세계 지도 40% 동해 병기"

사단법인 동해연구회 회장인 주성재 경희대 교수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데이터베이스에 지난해 8월 이후 별칭으로 '동해(East Sea)'가 들어갔고, 진전으로 본다"고 밝혔다.

주 교수는 이날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일본해(Sea of Japan)가 (미국 지명위가 정한) 명칭인데 작년 8월 이후 별칭으로 'East Sea'가 들어갔고 'Donghae'가 들어갔다"면서 "지명위가 나름대로 밸런스를 취한 것이고 별칭에 들어간 것은 진전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미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이유로 '일본해' 명칭을 쓰고 있다. 지난 5월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당시 '일본해' 명칭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국무부는 지명위의 결정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이 사안에 있어 동의할만한 방법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권고한다"는 입장을 당시 내놓기도 했다.

주 교수는 이 단체가 벌여온 동해 병기 운동과 관련, "일본이 국제회의는 물론 학술회의에서도 '동해'가 들어가면 틀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이 사사건건 동해 표기가 들어간 것만 보면 (자기들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독도가 들어가는 문서만 나오면 일본이 (자체) 매뉴얼에 따라 꼭 발언하고 있는데 지금은 동해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동석한 유의상 전 국제표기명칭대사는 "최근 들어 일본 스스로가 (동해) 병기가 늘어나는 걸 자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2002년엔 전세계 지도의 동해 병기가 2.8% 수준이었으나 2009년 28.1%로 늘었고 2014년 기준으로는 40% 정도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日 관방장관 "한일군사보호협정 연장 희망"

"한일관계 힘들지만 유지돼야"
방위상도 "폐기 고려 않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와 관련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이 협정의 폐기를 주장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그 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GSOMIA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을 제공하는 매국적인 협정이라며 한국 내에서 협정 파기 요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GSOMIA의 유효 기간은 1년인데,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한국 내에서는 이달 초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이후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강화의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본에선 GSOMIA의 유지를 원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주무 부처 수장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할 때 안전보장 면에서 미일, 한일, 한미일의 연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 협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유동적인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91〉 야율아보기

거란 부족 통일해 세운 요나라 초대황제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872~926)는 요나라의 초대 황제로 시호는 대성대명천황제다. 여러 거란 부족을 통일해 요 왕조를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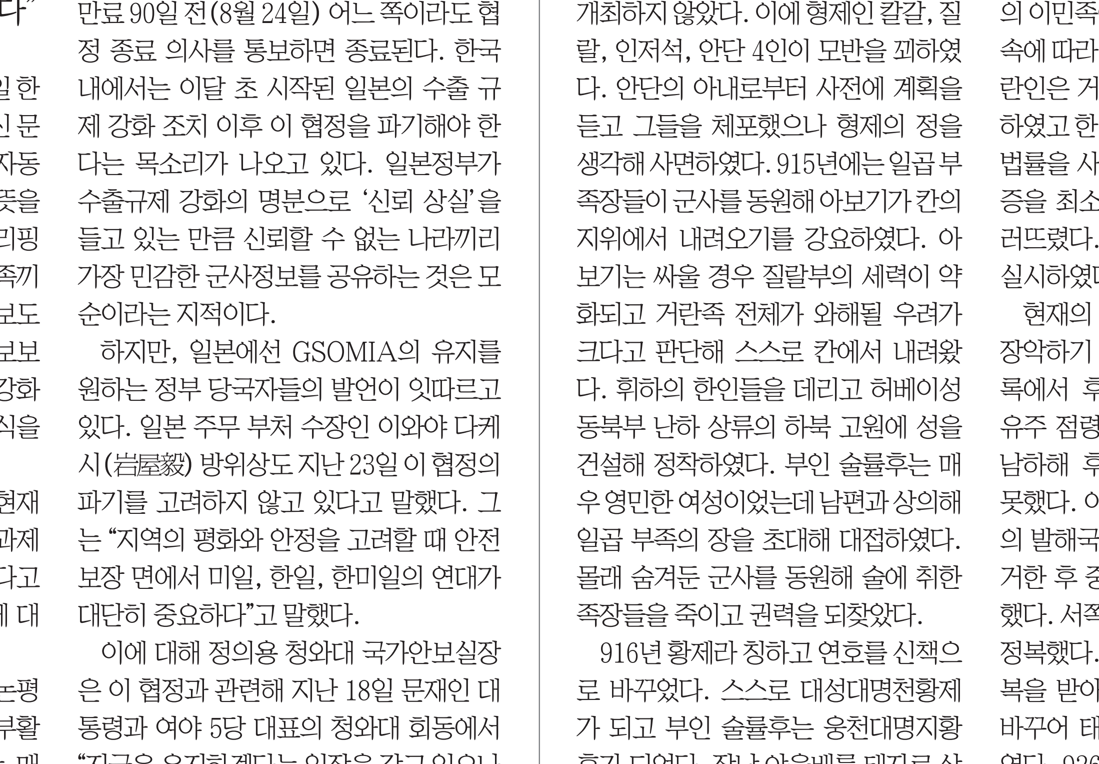
872년 거란 질랄부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질랄부는 거란의 여덟 부족 가운데 가장 강성한 부족이었다. 조부는 부족내 권력 투쟁 와중에 피살되었다. 부친과 삼촌은 타지로 달아나 할머니 보호하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체격이 크고 말과 활쏘기에 능했다. 901년 질랄부의 족장에 선출되었다. 907년 칸에 올라 거란 8개 연맹의 지도자가 되었다. 북쪽으로는 내몽고 동북부의 실위, 흑룡강 하류의 여진을 침범하고 서쪽으로는 돌궐의 옛 땅을 빼앗고 해(奚)를 공격해 멸망시켰다. 907년 30만 병사를 이끌고 산서성 운주를 공격하자 진왕 이극용이 그와 화친을 맺어 서로 형제가 되기를 약속하였다. 진왕은 금과 비단 수만을 선물하였고 아보기는 답례로 말 3천 필과 가축 1만 마리를 주었다.

거란의 전통에 따르면 3년마다 연맹의 수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보기는 5년이 지나도록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에 형제인 랄갈, 질랄, 인저석, 안단 4인이 모반을 꾀하였다. 안단의 아내로부터 사전에 계획을 듣고 그들을 체포했으나 형제의 정을 생각해 사면하였다. 915년에는 일곱 부족장들이 군사를 동원해 아보기가 칸의 지위에서 내려오기를 강요하였다. 아보기는 싸울 경우 질랄부의 세력이 약화되고 거란족 전체가 와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스스로 칸에서 내려왔다. 휘하의 한인들을 데리고 허베이성 동북부 난하 상류의 하북 고원에 성을 건설해 정착하였다. 부인 술률후는 매우 영민한 여성이었는데 남편과 상의해 일곱 부족의 장을 초대해 대접하였다. 몰래 숨겨둔 군사를 동원해 술에 취한 족장들을 죽이고 권력을 되찾았다.

916년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신책으로 바꾸었다. 스스로 대성대명천황제가 되고 부인 술률후는 응천대명지황후가 되었다. 장남 야율배를 태자로 삼았다. 술률후는 용맹스럽고 결단력이 있고 임기응변에 뛰어나 아보기는 그녀의 의견을 경청하였다. 진왕은 거란과 맹약을 맺어 아보기를 숙부로 술률후를 숙모로 섬겼다. 연나라의 황제 유수광이 참군 한연휘를 파견해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한연휘가 절을 하지 않자 아보기는 화가 나 들에서 말을 먹이도록 하였다. 술률후는 말하기를 "한연휘는 절개를 지키고 굴복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소와 말을 기르게 하여 욕보이십니까? 의당 예의를 갖추어 그를 기용해야 합니다" 한연휘는 성곽을 쌓아 한인들을 거처하게 하고 황무지를 개간토록 하였다. 이에 한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각자 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918년 내몽고 파림좌기에 수도 상경을 조성하였다. 재상으로 기용돼 여러번 승진해 직위가 중서령에 이르렀다. 거란에서는 그를 숭문상공(崇文相公)으로 존숭하였다.

922년에는 고려에 사신을 보냈으며 주변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한자를 본따 거란 문자를 만들었다. 거란 문자는 거란 대자와 거란 소자로 구분되는데 거란 대자는 예서의 반쪽에 획을 더하거나 빼서 만들었다. 거란 소자는 표음 문자로 300여개의 한자로 음을 표시하는 자모를 만들었다. 거란의 이민족에 대한 정책은 "각 민족의 습속에 따라 다스린다"는 원칙이었다. 거란인은 거란 민족 고유의 제도를 적용하였고 한인을 관리하는데는 당나라의 법률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종족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한족의 저항을 누그러뜨렸다. 소위 '일국양제'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현재의 베이징에 해당하는 유주를 장악하기 위해 30만을 동원해 하북 탁록에서 후진의 군대를 패배시켰지만 유주 점령에는 실패했다. 921년 재차 남하해 후진과 격돌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이후 북방의 유목 민족과 동쪽의 발해국을 공략해 배후의 위험을 제거한 후 중원을 도모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서쪽으로는 토욕혼, 탕구트 등을 정복했다. 926년 발해국을 친정해 항복을 받아냈다. 발해국을 동단국으로 바꾸어 태자 야율배를 왕으로 임명하였다. 926년 7월 귀국 도중 길림의 부여성에서 병사하였다.

풍암동, 동부 센트레빌, 근린상가, 매매/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아파트정문 앞
상가1층 101, 102, 109, 110호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보 8천만원에 월300만원)
임대기간 만료후 월세 100만원 인상가능
■ 매매 – 9억원
임대 – 보5천만원에 월세 400만원
문의. 010-6834-7400